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 23-수시03

유민상 · 서고운 · 신동훈 · 이지연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저 자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연구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 보고서를 펴내며

2019년 12월 무중력시대 양천의 청년 연구자 지원사업 평가회 참여는 고립과 은둔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방문을 계기로 연구를 시작하여 2021년 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가 나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보고서 출간 이후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는 정책영역에서도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노력 덕분에 현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가을,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 반응을 지켜보고 있을 때쯤 한 아동·청소년 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청년기 사회적 고립 보고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기에 누적된 문제들이 청년기 고립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어떻게 아동·청소년기부터 대응해야 하는지 서비스 구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청년기 연구처럼 아동·청소년기 고립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이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다.

연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시신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유진 선생님, 연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함께 논의해주신 함께하는 연구 조미형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에 용기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공동연구자분들 덕분에 이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좋은 연구자로서, 좋은 동료로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여러 고민을 함께 해주신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박사님, 이미영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유 민 상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 실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하는 것임.
  -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 연구내용

- 이 연구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연구를 진행하는 수시연구 과제로 진행되어 다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정리하였음.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정리,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방안 검토,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 분석,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법·정책 현황 분석,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대응방안 도출 등임.

###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문헌연구, 면담조사(아동·청소년 고립 관련 현장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연구실무협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음.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및 측정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이란 아동·청소년이 외부의 관계망과 단절되어 있거나 (외부적 고립), 자기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경우(내부적 고립)를 의미함.
  - 연구자들은 다양한 척도의 고립과 관련된 문항들을 이용하거나, 고립과 관련 요인들로 구성된 측정 도구들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사용해 온 한계가 있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화를 공고히 하여 이를 반영한 타당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
  - 아동·청소년기 고립은 현장에서 실제 발견되며, 최근 들어 관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들의 사례가 목격되고 있음. 조기개입과 예방적 개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으나 가정-학교-현장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장 전문가들은 조기 발굴 및 조기 개입,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 개입의 다양화, 부모 참여,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체계의 전문화 및 체계화 등의 대응을 제안하였음.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법·정책 현황 분석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지원 법제도는 이제 막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 사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과 지역의 법·정책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상징적인 법제도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출처: 저자작성

그림 i-1.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

-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비전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로”이며, 정책 도출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음.
  - 다양한 사회적 고립 스펙트럼 포괄 원칙
  - 아동·청소년기 예방·조기 개입 원칙
  -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심리·사회·경제적 지원 원칙
  - 고립화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 개입 원칙

## 핵심 정책제언



\* 출처: 저자작성

그림 i-2.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부과제

-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 비전과 원칙하에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시함
- ①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영역) 아동·청소년 고립현황 실태파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생애주기적·단계적 접근으로 확대 등
- ②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 영역) 발굴방안 개선,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전달체계 체계화 및 인력 전문화 등
- ③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영역) 사회적 인식개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23-수시03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주요 연구내용 ..... 4
- 3. 연구방법 ..... 5
- 4. 보고서의 구성 ..... 6

## II.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 추이

- 1. 개요 ..... 9
- 2. 생애주기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특징 ..... 10
- 3.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요인, 과정, 결과 ..... 13
- 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 18
- 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현황 ..... 25
- 6. 시사점 ..... 30

**Ⅲ.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

1. 개요 .....	35
2. 면접 방법 .....	36
3. 면담 결과 .....	39
4. 시사점 .....	54

**Ⅳ.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현황  
및 과제**

1. 개요 .....	57
2. 법·정책적 현황 .....	57
3. 시사점 .....	64

**Ⅴ.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	67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	67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	72
4. 후속과제를 위한 제언 .....	87

<b>참고문헌 .....</b>	<b>91</b>
-------------------	-----------

## 표 목차

표 II-1. 자기보고식 은둔형 외톨이 척도 .....	20
표 II-2.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은둔형 외톨이 성향 문항 .....	21
표 II-3. 202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은둔 관련 문항 ..	22
표 II-4.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은둔 관련 문항 ..	23
표 III-1. 면담 개요 .....	36
표 III-2.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 프레임 .....	38
표 IV-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회적 고립' 관련 내용 ..	58
표 IV-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내용 .....	59
표 IV-3.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 .....	60
표 IV-4.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	62
표 V-1. 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	68
표 V-2. 영역 I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실태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	73
표 V-3. 영역 II :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	78
표 V-4.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421, 2023.5.31.) .....	82
표 V-5. 영역 III :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85

## 그림 목차

그림 II-1. 사회적 고립의 개념 도식 .....	10
그림 II-2. 생애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립, 고립화 개념도 .....	15
그림 II-3. 은둔형 외톨이 진행과정 .....	16
그림 II-4.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2013~2023) .....	25
그림 II-5. 아동·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 변화 추이(2013~2022) ..	26
그림 II-6.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2013~2022) .....	27
그림 II-7.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낀다'는 청년의 비율 (18세~34세) .....	28
그림 II-8.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차이 .....	28
그림 II-9.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	29
그림 II-10. 스스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비율 (현재 경험과 평생경험) .....	30
그림 V-1.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 .....	71
그림 V-2.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부과제 도출 .....	72
그림 V-3. 사회적 고립의 개념 도식 .....	74
그림 V-4. 사회적 고립에 대한 생애주기적·단계적 대응 모형(안) .....	77
그림 V-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학교 안-학교 밖-지역사회 연계 모형 .....	80

#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주요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 실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현황, 문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란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개인을 중심에 놓고 외부와의 네트워크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혹은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볼 수 있다(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사회적 고립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교류, 지지체계 등 외부적 연결망, 그리고 개인이 인지하는 고립감과 외로움 등 주관적 상태를 아우르는 하나의 우산개념에 가깝다(유민상, 신동훈, 2021). 사회적 고립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과 등치시키기도 하지만 이는 협소한 인식에 불과하다. 사회 속에 있으나 타인과 연결망이 부족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의 고립이 먼저 관심을 받았으나 노년기와 중장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고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시작되는 아동·청소년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생애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나 사회적 관계의 부족은 생애 전반에 걸친 고립에 영향을

1) 이 장의 내용은 유민상 연구위원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미칠 수 있다. 청년들의 고립의 시작이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이 되지 않더라도, 부정적 경험들은 개인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대처 능력이나 역량을 줄임으로써 고립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2023).

한 개인의 인생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측정, 영향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해 시급히 연구를 진행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6개월 간의 수시연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기간과 예산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정리이다. 생애주기적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다양한 유사 개념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으로서 타당한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둘째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방안 검토이다. 사회적 고립은 추상화된 개념으로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회적 고립 개념과 측정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양적조사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 분석이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양적, 질적 연구를 시행하여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법·정책 현황 분석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기 법률, 교육관련 법률 등을 검토하고 현황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대처방안 도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초기 연구로써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을 도출하였다.

### 3. 연구방법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면접조사 등이며 정책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 부처 업무 협의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시행하지 않고 실무자 인터뷰로 진행하여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정리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방안 정리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관련 법·정책 분석 및 정리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관련 현황 자료 정리

#### 2)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관련 현장 실무자 인터뷰

#### 3)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개최

-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장전문가 간담회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은둔형 청소년 연구팀 간담회
- 학계 전문가 자문

#### 4) 부처 업무 협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업무 협의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와 실무협의
-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정책 방안 논의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 포럼은 본원과 성북구청,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개최한 제49회 청소년정책포럼으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이라는 주제로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되었다. 두 번째 포럼은 본원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개최한 포럼으로 성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도 함께 참여한 포럼이다. 이 포럼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되었다. 연구진은 포럼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대응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보고서에 반영되어 정책과제 등으로 활용되었다.

#### 4.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시의성 있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내용,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둘째, 2장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 방법,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셋째, 3장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정리하였다.

넷째, 4장은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현황 및 과제’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을 지원하는 위한 법·정책 현황과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은 ‘정책제언’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 제2장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 추이

- 1. 개요
- 2. 생애주기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특징
- 3.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요인, 과정, 결과
- 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 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현황
- 6. 시사점



# 2

##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 추이<sup>2)</sup>

### 1. 개요

이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 추이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 중장년기와 청년기의 연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양상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특수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기는 가정 내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시기의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시기와 고립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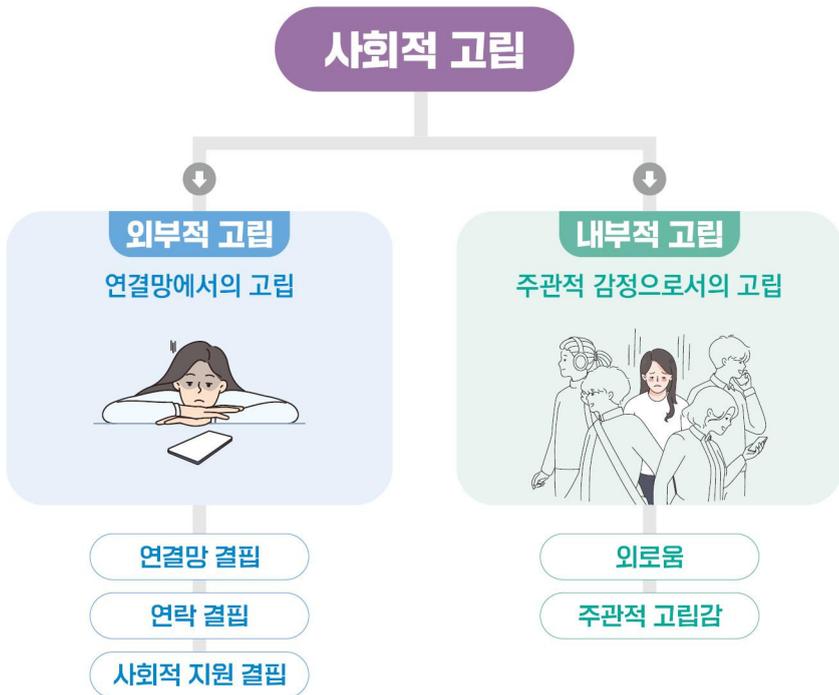
사회적 고립 연구에서 아동·청소년기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높이는 부정적 생애 경험이 쌓이는 시기이다. 다른 하나는 촉발 사건(trigger)으로 인해 고립의 양태가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고립 연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부정적 생애 경험이 누적 되어 고립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방안,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기 고립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후자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 방법, 발생 추이를 알아보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예방적 접근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이 장의 내용은 유민상 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 이지연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 2. 생애주기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특징

### 1)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란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와의 네트워크와 교류가 단절되어 있거나 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체계)이 없는 상태를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 심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혹은 외로움(고립감)을 느끼는 상태를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볼 수 있다(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하나의 우산개념에 가까우며,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 출처: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가 제시한 개념을 유민상, 신동훈(2021)이 도식화하였고, 본 보고서에서 도식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II-1. 사회적 고립의 개념 도식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Hikikomori)를 의역한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은둔은 ‘집’이라는 공간적 측면과 ‘나가지 않는다’는 행동적 측면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고 측정되는 반면, 히키코모리와 유사개념인 사회적 철회(social withdrawal)는 사회적 참여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을 더 강조한다. 은둔과 사회적 고립의 개념이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철회의 개념에서 보면 사회적 고립의 심화된 상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역시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달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적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타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었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역시 타인과 교류가 없는 상태로 고립되어 지낼 수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어 은둔 상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청소년기 등교를 거부하는 부등교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면 아동·청소년기에 사회적 고립 개념을 적용하는 것 역시 타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특징

아동·청소년기는 생애과정의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발달심리학에서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개념은 적절한 환경과 자극을 통해 단계별로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적기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기는 수많은 결정적 시기가 포진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또한 누적된 이익·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생애 초반에 개인에게 주어진 특성이나 자원의 작은 차이들은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향력이 결합되고 누적되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Dannefer, 2003).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관한 담론에서는 노년의 고독사 문제 등이 먼저 전면에 다루어졌다. 그리고 생애과정이론을 적용하여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 누적된 부정적인 경험들이 노년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등장한 바 있다(Crystal & Shea, 1990; Crystal, Shea, & Reyes, 2017; 김춘남, 박승남, 박승희, 김서인, 2018). 그 뒤를 이어 최근에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논의에 중심에 놓여있는 상황이다(유민상, 신동훈, 2021;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연구들은 생애과정에 걸친 누적된 경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생애과정의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부정적 생애 경험의 누적이 시작되는 시기로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특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작업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학술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삶에 필요한 자원의 다차원적 결핍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고립을 생활 차원, 경제적 차원, 정서적 차원으로 나누어 복합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집안일이나 돌봄에 관해 도움을 제공받지 못하는 생활 차원의 사회적 고립, 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제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가 없는 정서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본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경제적 차원의 고립이었고 생활 차원의 고립과 정서적 차원의 고립이 그 뒤를 이었다(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그러나 언뜻 보아도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각 차원의 사회적 고립 개념을 아동·청소년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박찬웅 외, 2020)을 사회적 고립이라고 할 때,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생애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에 일찍이 주목하고 고독청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은 사회적 고립을 전생애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 생애과정 별로 사회적 고립의 발생 원인과 개입 방안을 살펴본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발간한 보고서는 가정폭력과 학대 및 방임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성적부진이나 진학 실패 등을 아동기의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본다(Durcan & Bell, 2015).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논의에서는 가정으로부터의 생활 및 경제적 지원과 돌봄, 주양육자 및 또래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학업이나 진로에 필요한 도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국내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은둔형 외톨이로 번역되는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등 청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생애과정의 초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기의 시기적 특징으로 인하여 축적된 부정적 경험이 청년이나 중·노년에 비해 현저하게 적을 수 있다. 미성년으로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부모 또는 그 밖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단절 또는 은둔에 이르는 경우가 적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반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가 고립되어 있는 경우 혹은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발견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시기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시급하게 개입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켜야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아동 또는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의 특징을 고립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여러 가지 영향요인들이 누적되는 “고립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고립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적절한 개입 지점과 개입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 3.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요인, 과정, 결과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까닭에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사회적 고립의 한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은둔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연구로부터 아동·청소년 시기 사회적 고립의 요인, 과정,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한 영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시기별 사회적 고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경험에는 차이가 있었다(Durcan & Bell, 2015).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핵심 영향요인으로 취업실패, 관계단절 경험, 낮은 사회적 연결망 등을 지목한 반면, 아동·청소년기의 영향요인으로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 학교폭력, 가족 돌봄, NEET 상태 경험 등을 제시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체계를 비롯해 이와 연동되는 노동시장 등과 관련해 한국과 영국 간 차이가 있으며

로,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국내의 상황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국내에서는 김춘남 외(2018)의 연구가 생애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거시적 요인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거나 강화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생애과정의 구분 없이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며, 사회의 분화와 합리화, 개인화, 세계화 등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가 현대사회의 사회적 고립 양상을 견인한다고 보았다. 미시적 요인은 생애과정 별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는 부모 요인, 심리적 요인, 또래 문제나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Durcan과 Bell(2015)의 연구와 특히 구분되는 지점은 거시적인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한 점이다.

청소년 시기 은둔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관점을 견지한다.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은둔으로 내몰리는 청소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황순길 외, 2005; 윤명숙, 송행숙, 2011).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과 그 과정에서의 좌절감이 청소년들을 사회로부터 숨도록 하는 데 일조하고, 여기에 부모의 성취 압력이 더해질 때 방문 밖으로도 나가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이 청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손실은 궁극적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는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사회적 고립의 연결고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학진학 실패, 미취업 상태의 장기화, 사회적 관계의 약화 등과 같은 청년 시기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영향요인에 주목하기도 하지만(김재희, 박은규, 2016), 청소년기부터 이어지는 가족이나 또래관계 등에서의 부정적 경험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된다(류주연, 성기욱, 김수진, 2023; 신예림, 유현경, 한상희, 김순규, 2023). 특히,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이 중첩된 청년의 경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22.1%)이 청년기에만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경우(10.8%)에 비해 두 배 이상 크게 나타났으며, 아동·청소년기에만 부정적 경험을 했던 청년도 적지 않은 비율(15.8%)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함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유민상, 신동훈, 2021).

한편,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비해 학교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관계의 다변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 또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안적인 지지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커 부정적 또래관계로부터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아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고를 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등의 독특성을 보인다(Elkind, 1967). 즉, 사회적으로 부여된 정체성(규범, 신념, 태도 등) 확립의 지연 또는 실패는 중요한 타인(부모, 선생님, 친구 등)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고립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크게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 폭력 경험, 관계 경험의 차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은 빈곤 경험, NEET 상태 경험, 학업 중단과 같은 경험이며,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이 폭력 경험에 속한다. 관계 경험은 부모의 과도한 학업 기대나 가족 돌봄과 같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포함한다. 덧붙여,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개인과 개인의 물리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를 매개로 정서적 단절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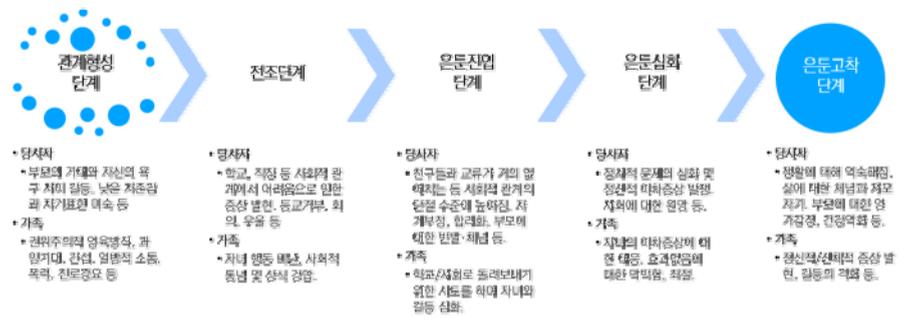
구분	생애과정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고립 발생 영향 요인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 빈곤 경험, NEET 상태 경험, 학업 중단	사회경제적 위기 경험 NEET 상태 경험, 빈곤 경험, 취업실패 경험	경제활동 문제 생계유지부담, 부채	경제적 문제 노인빈곤
	폭력 경험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 학교폭력	폭력 경험 또래폭력, 데이트폭력, 군대폭력, 직장따돌림	이행실패 취업실패, 창업실패	건강문제 만성질환, 활동제한, 치매, 우울, 불안, 미충족 의료
	관계 경험 부모의 과도한 학업 기대, 가족 돌봄 부담(영케어러)	관계 경험 가족 돌봄 부담(영케어러),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 갈등 이혼, 사별, 관계불화	지지체계 부재 은퇴후 부적응 자녀 및 배우자 갈등 도움자원 부재

\* 출처: 국민통합위원회(2023) 사회문화분과 내부자료, Duncan & Bell(2015),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 Course 연구에서 제시한 틀의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수정하여 제시함

그림 11-2. 생애과정에서의 사회적 고립, 고립화 개념도

청년기 부정적 경험의 유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의 차이가 없는 결과(유민상, 신동훈, 2021)가 시사하듯,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되더라도 반드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고립은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과 이에 대한 보호체계의 붕괴로 발생한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으로 전개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은둔형 외톨이 진행과정을 다른 연구에서 간접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오오쿠사미노루(2020)는 한국에서 K2인터넷서널그룹 활동을 통해 추진한 사업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토대로 은둔형외톨이 진행과정을 총 5단계(관계형성단계, 전조단계, 은둔진입단계, 은둔심화단계, 은둔고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당사자와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주된 은둔진행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은둔화 과정에서 당사자는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해 심리정서적 불안, 우울 등을 겪고, 이것이 학교나 직장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으로 발현되면서 등교거부나 대인공포, 책임회피행동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은둔진입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의 단절 수준이 심화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되며, 심할 경우 정신적 이차 증상이 발생하거나 사회에 대한 원망과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이 상태가 고착화되면 신체적 건강의 악화와 삶에 대한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출처: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된 오오쿠사 미노루(2020)의 토론문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에 제시된 은둔형 외톨이의 진행과 지원 과정에 대한 표를 요약·재구성 하였음.

그림 11-3. 은둔형 외톨이 진행과정

한편, 부모의 원활하지 못한 양육과 소통 방식 등은 단계를 거듭하면서 점차 자녀 행동에 대한 비난이나 사회적 통념 및 상식을 강압하려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나아가서는 학교나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자녀와 갈등이 극대화되기도 한다. 또한, 자녀에게 발생한 정서적 문제의 심화와 정신적 이차 증상에 대한 치료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절되거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가족은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고착화될 때 가족 역시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증상을 겪으며,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달리 은둔생활을 경험한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를 통해 은둔생활을 3단계(은둔생활 입성기, 은둔생활 중반기, 은둔생활 후반기)로 구분한 노가빈 외(2021)의 연구에서는 각 단계를 해당 단계의 특징과 정서·행동 변화 양상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먼저, 은둔생활 입성기의 특징은 사회적 활동·관계 등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휴식을 취하는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 단계에서 청년들은 정서적 안락함을 느끼고 관계의 단절과 칩거를 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동반된다. 다음으로, 은둔생활 중반기는 은둔 생활이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시기로 통제감을 상실한다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때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변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은둔생활 후반기는 은둔생활을 철회하고자 하는 저항감이 상승하는 시기로 은둔 탈피를 위한 구조요청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시기다. 정서적으로 심각한 괴로움과 좌절, 절망감 등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많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으로 적극적인 구조요청의 행동변화를 일으키며 은둔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청년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정리한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열한 경쟁이나 연령 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조건이 그러한 상태를 강화해 고립의 장기화와 심화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다만, 개인이나 환경적 배경은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으로의 전개를 방해하는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가 본격화되거나 심화되기 이전에 외부로 드러나는 양상이 있다는 점과 초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증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대한 관심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 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

### 1) 사회적 고립 상태 측정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측정은 주로 외로움 혹은 발달·문제행동 척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Loades et al. (2020)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약 80여개의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들의 논문(Loades et al., 2020)에 의하면, 많은 연구들이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혹은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UCLA Loneliness Scale(Russell, 1996; Russell, Peplau, & Cutrona, 1980; Russell, Peplua, & Ferguson, 1978),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LSDQ; Asher & Wheeler, 1985), Child Behavior Checklist(CBCL; Achenbach, 1991)의 몇 개 문항 등, 이미 개발된 아동·청소년기의 외로움 척도 혹은 발달·문제행동 척도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문항 등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다양한 척도들이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공격성과 외로움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2022)의 연구는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척도(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sup>3)</sup>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성인기의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안지영, 김종남(2017)의 연구에서는 외톨이 질문지(김은정, 2001)<sup>4)</sup>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되고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가 부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

3)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Bowker & Raja, 2011)와 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Nelson, 2013)의 문항을 번안하여 타당화한 총 20문항의 질문지로, ① 수줍음, ② 비사교성, ③ 회피, ④ 사회적 고립의 총 4개 요인으로 구성됨(김원희 외, 2016)

4) 친구가 별로 없어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을 선별할 수 있는 총 16문항의 질문지로, ① 친구들과의 교류 부재, ② 친구관계에서의 소외와 외로움, ③ 사회적 유능감의 총 3개 요인으로 구성됨(김은정, 2001).

## 2) 은둔 상태 측정

사회적 고립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기의 ‘은둔’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은 국내에서 드물게나마 시도되었다. 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sup>5)</sup>’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고립보다는 은둔의 개념화가 일찍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고립에 비해 은둔의 발현 양상이 보다 명확하고, 은둔으로 인한 부적응 현상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국내에서 개발 시도되어진 아동·청소년 은둔 측정도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1년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은 부모가 측정하는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Parental Screening Questionnaire for Hidden Youth)를 개발하였다.<sup>6)</sup> 그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① 사회와 단절되어 3개월 이상 집 안에만 머물고 있으며, ②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고, ③ 친구가 한 명 이하에, ④ 자신의 상태에 불안 혹은 초조함을 느끼고 있으며, ⑤ 정신병적 장애 혹은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백형태 외, 2011). 은둔형 외톨이로 추정되는 8세에서 25세 사이의 총 42명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서울 소재의 중·고등학생의 보호자 총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피 요인(예: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하지 않고 회피한다” 등), 단절 요인(예: “우리 아이는 식구들과 따로 식사를 한다” 등), 고립 요인(예: “방문을 걸어 잠근다” 등), 무관심 요인(예: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없다” 등)의 총 4개 요인으로 구성된 36개 문항의 보호자가 측정하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평가 척도가 제안되었다(백형태 외, 2011).

이후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의 은둔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 보고식 평가 척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제세령 등(2022)은 자기보고식 은둔형 외톨이 척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히키코모리 질문지(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Teo et al., 2018)를 한글로 번안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5) 히키코모리(Hikikomori)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관찰되었던 사회적 단절/철수(withdrawal)의 심각한 형태로, 1970년대 이래 주로 청소년들에게서 관찰되었고, 1990년대 이후 보다 부각되었으며, 근래에는 보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음(Kato, Kanba, & Teo, 2019).

6) 이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의 의미이나, 이를 은둔형 외톨이라는 명칭으로 번역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며 이를 정책용어나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선행연구자의 결과물을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I-1. 자기보고식 은둔형 외톨이 척도

구분	문항 수	문항
사회화 요인	11개	1. 사람과 거리를 둔다.
		4.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6. 사람이 귀찮다.
		8.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11.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싫다.
		13.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서투르다.
		15. 사람과의 교류는 즐겁다.
		18.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20.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다.
		23. 사람을 사귀는 것은 즐겁지 않다.
25. 혼자 있는 것 보다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훨씬 좋다.		
고립 요인	8개	2.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보낸다.
		5. 나의 방에 틀어 박혀 있다.
		9. 하루 종일 거의 혼자서 지낸다.
		12.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것이 거의 없다.
		16. 사회의 규칙과 가치관에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
		19.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말하기, 글쓰기 등)
		22.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거의 없다.
24.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거의 없다.		
정서적지지 요인	6개	3.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다.
		7.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10. 몇몇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
		14.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의논할 사람이 별로 없다.
		17.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다.
		21.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 주: 각 문항은 '최근 6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며, (1) 해당되지 않는다. (2)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3) 어느 쪽도 아니다. (4) 조금 해당된다. (5) 해당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함.

\* 출처: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은둔형 외톨이 자기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61(2), 80-89.

만 13세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의 일부 연령층만을 포함하였으며(만 13세보다 어린 청소년과 아동은 제외), 청소년기를 넘어선 성인도 연구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척도로 구성된 3가지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화(Socialization) 요인(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등), 고립





마지막으로 살펴볼 청소년의 은둔 문항을 포함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이다(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로, 한국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청년기본법 상 법정조사인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로 2022년 병합되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청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을 모집단으로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는데, 만18세에서 만34세까지의 연령을 포괄하여, 연구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청소년이 주된 관심이라기보다는 청년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의 연령이 청소년의 연령도 일부 포함하는 만큼, 해당 연구에서 어떻게 은둔을 측정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표 II-4.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은둔 관련 문항

구분	문항
평소 외출 정도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현재 상태 지속 기간	(평소 외출 정도 문항에서, ⑤, ⑥, ⑦, 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7년 미만                      ⑥ 7년 이상

\* 주: 해당 표에서는 평소 외출 정도, 현재 상태 지속 기간 문항만 제시하였음.

\*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은둔과 관련해서는 평소 외출 정도, 외출하지 않은 상태의 지속 기간 정도, 외출하지 않게 된 계기의 문항들로 구성하여, 다른 실태조사에서들에서는 은둔의 여부를 ‘예’ 혹은 ‘아니오’ 측정하였다면, 해당 연구에서는 외출의 정도를 여러 단계로 구성하여 응답지로 제시하였다(표 II-4). 외출의 정도가 은둔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여겨지는 응답을 했을 경우(표 II-4의 ‘평소 외출 정도’ 문항에서 ⑤, ⑥, ⑦, ⑧로 응답한 경우), 현재 상태 지속 기간 및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를 질문한다. 해당 문항은 2차년도 연구인 2017년 연구(김기현 외, 2017)에서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 내각부 청소년지원담당에서 2010년 2월에 진행한 청년의 의식에 관한 조사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문항을 재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이 문항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이후, 서울시 고립 은둔청년 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의 은둔 상태 측정 문항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측정은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수정·보완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청년기 은둔 상태뿐만 아니라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 개념을 반영하여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관계망(network), 타인과의 온·오프라인 연락(contact), 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체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내부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하여 UCLA 외로움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기 주관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측정하였다(유민상, 신동훈, 2021).<sup>10)</sup>

지금까지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의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청년기 사회적 고립 측정 방안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관련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척도의 고립과 관련된 문항들을 이용하거나, 고립과 관련 요인들로 구성된 측정 도구들을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화를 공고히 하여 이를 반영한 타당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

10) 202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 연구에서와 같이 개인의 관계망(network), 타인과의 온·오프라인 연락(contact), 사회적 자원(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자료의 공표일정은 2024년 1월이다. 이 조사의 결과는 2024년 1월 이후 KOSIS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서비스(MDIS)에서 원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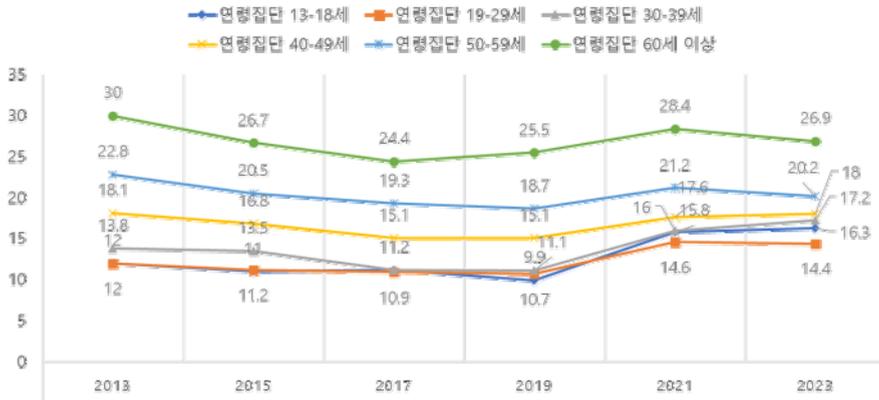
## 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화와 측정 도구가 확정되지 않아 아직 실태를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지표는 제한적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대리적 지표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외부적 고립(연결망, 지지체계)

통계청 사회조사는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조사의 보면,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핍은 60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노년기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별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기(13~18세)와 청년기(19~29세)의 사회적 고립 정도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조사에서는 청년기(19~29세)에 비해 아동·청소년기(13~18세)의 지지체계 부재가 더 높게 나타나, 코로나19가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체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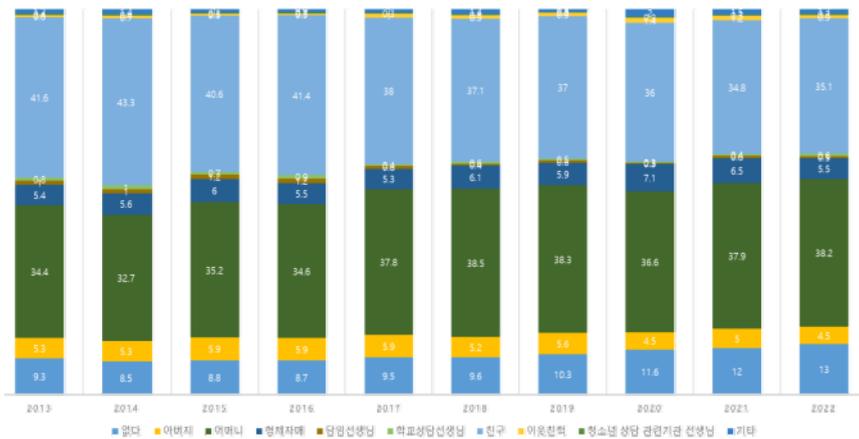


\* 출처: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그림 II-4.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2013~20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유사한 요소를 측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다. 이 조사는 ‘없다’와 그 이외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부터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전체 비중에서 ‘없다’와 ‘어머니’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친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이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학교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선생님,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선생님 등 공공 체계의 비중은 낮은 상태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서 학교, 청소년 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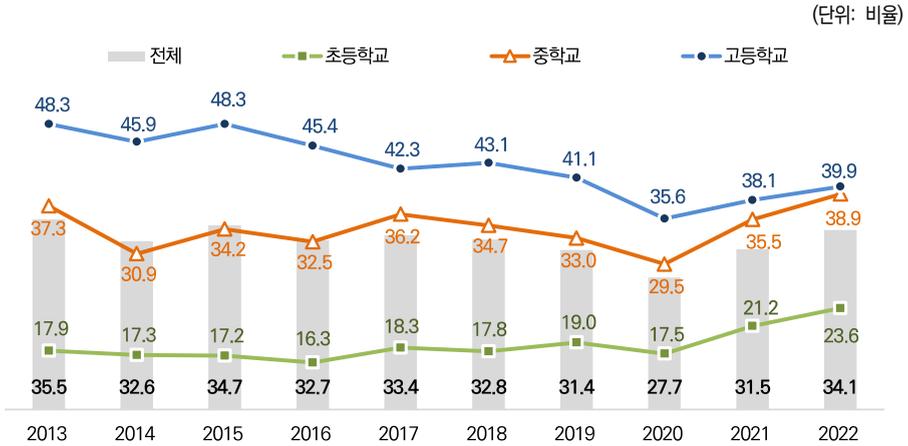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최홍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11-5. 아동·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 변화 추이(2013~2022)

## (2) 내부적 고립(외로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우울 측정 문항 중 하나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지표를 생산하고 있다. 청소년 비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하강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중학생과 초등학생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초등학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외로움’의 저연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학생 역시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세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 출처: 김영지, 최홍일(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II-6.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청소년의 비율(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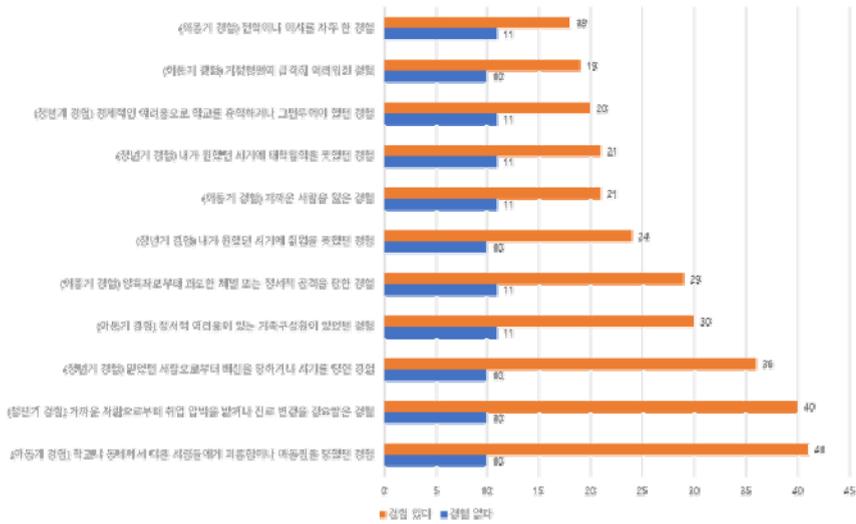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같은 설문이 적용된 18세~34세 대상 조사에서는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여 청년층의 외로움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UCLA 외로움 척도 중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한 연령별 결과를 보면, 만18~19세의 외로움 정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8% 가량이 '드물게 그렇다(5.3%)', '가끔 그렇다(2.4%)', '항상 그렇다(0.4%)' 로 응답하여 아동·청소년기에도 외로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유민상 외, 2022).

고립감은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부정적 경험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 청년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한 현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부터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분명해 보인다(그림 II-8 참조).



\*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원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그림 11-7.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낀다’는 청년의 비율(18세~3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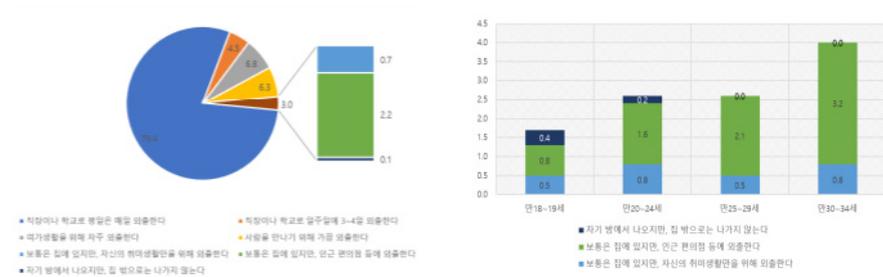


\*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원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그림 11-8.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 비율 차이

### (3) 기타(은둔 상태 경험)

마지막으로 심도가 깊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은둔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같은 설문이 적용된 18세~34세 대상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3%가량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8~19세에서의 전체적인 비율은 1.5%에서 2% 사이로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비율은 18~19세, 20~24세에서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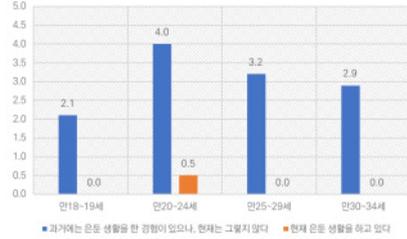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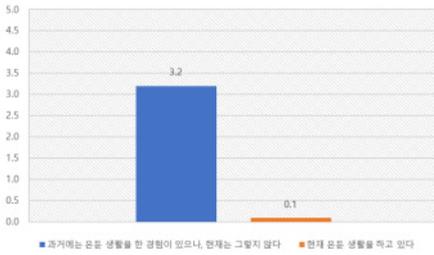


\*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원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그림 11-9.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은둔 상태를 측정하는 ‘외출’은 일종의 대리 지표(proxy variable)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철회(social withdrawal)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이로 인해 외출 지표가 은둔 상태의 사람을 과다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sup>11)</sup>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 연구에서는 “귀하는 살아오면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이나 집에서 주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은 채 생활한 경험(은둔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현재 경험과 평생 경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평생 경험률은 3.2%로 나타났으나, 현재 경험률은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20~24세에서만 이러한 응답이 나타났는데 앞선 사회적 고립(외부적 고립, 내부적 고립) 척도와 다르게 은둔은 학령기 이후 혹은 학업 중단 이후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물론 사회조사의 방식은 가정문제를 통한 면접 방법이 주로 활용되므로 은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조사 거절 등이 발생하여 과소 추정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출처: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2022)가 연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 원데이터를 재분석하였음

그림 II-10. 스스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비율(현재 경험과 평생경험)

## 6. 시사점

이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소년은 누구이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 추이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역시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은 성인기의 사회적 고립과 큰 틀에서 유사하나,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와 가정 내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거나 교육을 받는 시기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사회적 고립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히 외출을 근거로 하는 은둔 개념을 적용하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현상의 일부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맞는 개념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제언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고립의 측정에서 성인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측정하는 도구는 개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측정하는 도구는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 은둔 상태를 측정하거나 은둔 청소년을 판별하고자 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사회적 고립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학술적 차원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사회지표의 측정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 선별 도구로서의 판별 척도 역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과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위험요인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은둔과 사회적 고립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나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는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예방적 개입과 사전적 개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의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대한 대응 전략이 모두 필요할 수 있다.

요컨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측정도구,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적절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로 정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연구와 정책이 함께 발전하면서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과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거기반의 접근과 당사자 중심의 접근 모두 중요하므로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당사자의 목소리와 상태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제3장 사회적 고립 아동·  
청소년은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

- 1. 개요
- 2. 면접 방법
- 3. 면담 결과
- 4. 시사점



# 3

##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은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sup>12),13)</sup>

###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양상과 지원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의 고립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심화 혹은 악화되는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과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 경험의 발생에 의해 나타나는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원인과 과정과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를 완화하는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질적연구 방식으로 전문가 면접을 진행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면접 방법, 분석 결과,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12) 이 장의 내용은 유민상 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 이지연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13) 연구에 참여해주신 현장 실무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 면접 방법

### 1) 조사기간

이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 2023년 11월이다.

### 2) 참여자 정보

이 연구는 현장 전문가 16명을 인터뷰하였다. 현장 전문가들은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눈덩이 표집되었다. 현장 전문가는 4개 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초점집단 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수시과제 인터뷰에 대한 원내 IRB 심의를 통과하였다.

표 III-1. 면담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면담참여자 수	• 총 16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전문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자 (5인)</li> <li>- B그룹: 꿈드림센터 실무자(4인)</li> <li>- C그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5인)</li> <li>- D그룹: 고립은둔 청년 대상 사업 실무자(2인)</li> </ul> </li> </ul>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방식</li> <li>• 현장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시간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개별심층면접(ID) 참여</li> </ul>
면담 시간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점집단면접 1그룹 당 90분씩 내외, 1회 (개별면접으로 진행될 경우 1인당 90분 내외, 1회)</li> </ul>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참여자 모집 방법	• 눈덩이 표집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비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202308-HR-수시-002)

### 3) 면접방식

이 연구는 대면면접과 비대면면접(온라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은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과 분석 진행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 4) 연구윤리

연구자들은 면접 시작 전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 내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표기될지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설명문을 통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설명서 및 동의서에 표기된 연구자의 연락처와 IRB 연락처를 통해 연구 참여에 대한 문의 및 민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5) 분석방법

이 연구는 면담을 통해 질적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 (1) 자료코딩

면접 시 녹음된 파일은 외부 인력 혹은 AI기반의 회의기록 변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녹음된 파일의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윤문 등을 거쳤다.

#### (2) 자료분석

연구진은 각자 인터뷰에 참여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뷰 내용을 주제화-범주화하였다. 연구진은 전사된 자료를 컴퓨터 기반 질적연구 분석프로그램(NVIVO)을 통해 분석하였다. NVIVO를 통해 개념 및 주제 도출 과정을 거쳤다.

## 6) 질문 프레임

이 연구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로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 면접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면접 프레임을 통해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III-2.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 질문 프레임

주요 요소	내용
아동·청소년의 고립과 주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은 누구인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은 언제부터 고립이 시작되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이 호소하는 고립의 문제는 무엇인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의 가정배경은 어떠한지</li> </ul>
고립된 아동·청소년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은 어떻게 서비스에 들어오게 되었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은 스스로의 고립을 어떻게 자각하는지</li> </ul>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의 유형과 성장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은 어떠한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지</li> <li>• 고립에서 은둔은 하나의 연결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로 성장하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로 분화되는지</li> </ul>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의 회복과 재고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사례가 있는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이 재고립되는 경우가 있는지</li> </ul>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시급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기관, 인력이 필요한지</li> <li>•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고립대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연속성/전문성)</li> <li>• 장기적 사례관리를 위한 체계가 있는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li> <li>• 고립된 아동·청소년 지원을 막는 요인이 있는지</li> <li>•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고립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li> </ul>

### 3. 면담 결과

#### 1) 아동·청소년기의 특징과 사회적 고립의 개념

##### (1) 아동·청소년기의 특징 1: 부모의 우산 혹은 그늘 아래

아동·청소년기의 생애과정 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아직 미성년으로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아래 놓여있다는 점이다. 당사자가 학교 등에 부적응하는 문제를 겪고 있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고립이 심화되어 은둔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가족을 포함한 보호자가 대신하여 정책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고 있는 일선 센터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과 먼저 접촉점을 만들고 사례 발굴을 시도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기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J: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가족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족 교육도 굉장히 이제 발굴의 장이에요. 부모님들이, 아직 아이들은 우리에게 의뢰를 안 했는데, 본인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이거를 이제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오세요. 그러면 그 교육 10명이 오면은 그 10명의 지금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이 처해 있는 사회적 고립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 등의 가족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체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학대나 방임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고립시키는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미성년 지위 때문에 발굴 및 개입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책 서비스 제공자가 이들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성인인 부모를 대상자로 하여 가구를 방문하다가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포착하여 연계하기도 하고, 아동 학대 건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부모에 의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을 서비스에 연계하여 구출해내기도 한다.

H: 최근 사례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방임 학대 건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신고되어서 살펴보니 그 또한 굉장히 철옹성 같은 부모의 케어 안에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아이도 있고 그게 아닌 다음에 보호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어서

N: 아동·청소년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본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 의해서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제약받는 거라든지 응원받는 게 너무 격차가 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아까 가정폭력 아동학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고요. (...) 그래서 아이들은 존재는 하지만 자기 권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가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 부모 환경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그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제약을 갖는다는 게 아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피해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 (2) 아동·청소년기의 특징 2: 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진 정형화된 과업

우리 사회에서 ‘학령기’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에게 기대하는 과업은 상당히 획일적인 측면이 있다. ‘학령기’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이어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나 학업에서의 좌절은 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선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는 전문가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는 주어진 발달 과업의 성취 여부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유일한 과업처럼 여겨져서 실패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O: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소속되어야 하는 집단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느낄 때 적응하지 못하고 느낀다는 거랑. 특히 생애 주기에 발달 과업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청년기를 넘어가면 사랑이든 생산이든 자아 통합이든 그런 것들은 마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처럼 요즘에는 좀 느껴져요.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돈 벌든 말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그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조금 타이트한 것 같고 그걸 해내지 못한 게 마치 선택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를 좀 이걸 실패했다는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공감 위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 발달 과업이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험한 실패가 나의 사회 진출 성공 성공적인 삶에 대한 실패까지 파급화되는 걸 많이 봐서

J: 이제 스물 넷 스물 다섯 나이를 좀 먹었어. ‘나도 답답해, 나도 이려고 사는 게 싫어.’ 이 시기인 거 하고 청소년기는 너무 달라요. 청소년기는 정말 굉장히 이게 상처를 핵폭탄을 맞아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짜질한 아이, 너무 짜질해, 남들이 다 가는 학교를 나는 못 가.’ 부모도 그러면 ‘남들이 다 가는 거를 너는 못 가니.’ 취업이야 못 할 수도 있죠. 청년기에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는 누구나 가는 곳이잖아요. 이 인식이. 아무래도 아이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누구나 가는 곳”인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은 아직 보호자의 영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까지는 버티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어쨌든 학교라는 사회에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등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해당 아동·청소년을 사회적 고립되었다고 보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의 전조 증상 또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거나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은둔 상태로 급속하게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시기일 수 있어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의 징후들을 포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J: 의무교육 억지로 억지로 중1 갔다가 중2 때 이제 정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학교 안 나가기 시작하죠. 초등 때 학교 안 나가는 건 상상을 좀 못 하잖아요 좀 순한 아이들은. 그러다가 중1 중2 되니까 어머 ‘나 정말 가기 싫어. 너무 못 견디겠어.’ 그때. (...) 겨우 겨우 중3 마치는 정도. 거의 우리 67일? 67일인가 그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거의 간당 간당. 그리고 초등 6학년 때도 거의 학교 안 나갈려고 할 때도 교육 선생님들이 이제 막 무슨 문화 프로그램? 뭐라고 그러죠? 체험 활동? 그거로 빼 주고, 병가도 빼주고. 중학교에 가서도 순하니까. 사고치는 애면 솔직히 좀 쉬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애는] 너무 순해. 그러니까 ‘병가 내줄게.’ 그러니까 ‘엄마가 병원 서류만 떼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처리해 주고 처리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병이라고 해 갖고 현상을 키우는 거죠. (...) 교사들 인터뷰 했거든요. ‘아무 문제없어요. 애는 순해요. 애 괴롭히는 애가 없어요.’ 이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발견이 늦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중3 의무 교육 마쳐버리면 고등은 이제는 안 갈란다.

### (3) 아동·청소년기의 특징 3: 고립으로 가는 과정, ‘고립화’의 시기

지금까지 비교적 관련 논의나 연구가 축적되어 온 ‘은둔’ 상태의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는 집이나 방과 같은 특정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물리적 상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행위를 기준으로 은둔 여부를 판단해왔다. 학술적으로는 3~6개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은둔 상태를 지속할 때 그 개인을 히키코모리로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은둔 생활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은둔의 정의와 경계를 명확하게 나눌 수 없고, 고립 또한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L: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고립이라 볼 수 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은둔으로 볼 수 있냐의 그 정의와 그 선이라는 게 좀 불명확하다는 건 현장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기간이 만약에 두 달이다 2주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제 고립으로 본다. 이런 어떤 것도 정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떨 때는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는 기준, 그렇지만 집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나 PC방을 가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애들이 고립이다 은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은둔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은둔과 고립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는 앞서 살펴본 아동·청소년기의 발달 상의 특징과 이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히키코모리 판별 기준이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실제로 고립과 은둔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사회적 고립의 정도(degree)와 심도(depth)가 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P: 제가 느끼기에 은둔형외톨이는 정말 말 그대로 일본어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심한 레벨인 것 같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건 (...) 그 집단에서는 그 친구에게 요구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실패나 좌절이 있다거나,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이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할 때 (...) 주변과의 좀 단절을 선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 제가 더 많이 만난 케이스는 학교라는 집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근데 거기에서도 성공적으로 그 발달 과업을 수행하지 못해서 더 길게 고립이 되고 좀 이런 경우를 좀 본 것 같아요.

아직 생애과정의 초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기에는 심한 고립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는 ‘고립화’의 과정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의 개념을 논의할 때에는 고립의 상태에 이르는 ‘고립화’를 함께 들여다보아야 하며,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다룰 때에는 특히나 이 ‘고립화’의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

M: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을 더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이런 고립에 빠지기 전에 이런 학교 부적응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굉장히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내향적인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초기에 발굴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사회성을 길러주고 아니면 관계 부분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의 어떤 부모님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하면서 이런 예방적인 차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센터에서는 했습니다.

O: 그냥 사회적인 틀로 봤을 때는 학교 다니니까 고립 청소년이라고 아마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겠지만 그 아이의 정서 상태를 보면 고립이나 매한가지고 애가1~2년 후에 졸업하고 나면 분명히 은둔이나 고립으로 갈 만한 아이인 건데 그냥 사회적 정이나 이런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고립이라고 아마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재학생이고 학교 출결을 잘하고 있으니까. (...) 이 아이들을 청소년기에 잘 찾을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잘 찾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 (4) 고립의 다양한 차원(dimension):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

외부적 고립은 사회적인 연결망이 끊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타인과의 접촉 빈도,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타인과 맺는 정서적 관계를 외부적 고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았다(유민상, 신동훈, 2021).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다 포함하여 사회적 고립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대상자 분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장실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 두는 것을 사회적 고립의 명확한 신호라고 보고 지원하고 있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연결망이 잘 기능하고 있다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우울과 같은 정서적 혹은 정신 병리적 문제만으로 그 개인을 사회적 고립의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B: 어쨌든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드러나는 명확한 신호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를 자주 지각한다든지. 그러면 학교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미 거기에 그게 꼭 요새 교육 복지는 경제적인 수준만 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서적인 걸 다 포함하면 이걸 교육복지 사업에서 해야 되고

A: 이제 그 가족 자체가 지금 외할머니랑 엄마랑 있었던 그 아버지랑 이혼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지지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고 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 갈등이 있었고 학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아이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아이가 그 친구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제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집 안에 있으면서 최근에는 병리적인 거죠. 한 달을 안 씻는다던가 냄새가 나서 막 집 안에서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됐었던 부분으로까지 가긴 했지만 저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지금은 깊은 우울증 상태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립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 위축감, 관계 맺기의 어려움 등에 주목해야 하고 특히나 물리적 고립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기에는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 고립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실무자들도 있었다. 아동·청소년기라는 특징 때문에 부모나 학교 등 몇몇 관계망들이 아직은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정서적 외로움이 상당하다면 언젠가는 사회적 고립의 경로에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 고립의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애과정의 초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기는 사회적 고립을 촉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이 축적되는 시기라는 점을 유념하여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아이들의 내부적 고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M: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때 가정 안에서의 어떤 대인관계 패턴이 이 아동·청소년의 학교나 이런 곳에서의 대인관계 패턴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학대 아이들을 이제 보면 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의 대인관계 기술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집안에서 이 친구는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살아남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내부적 고립의 잠재적 지표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연결 욕구, 소속감, 외로움, 신뢰를 지목한 바 있다(Zavaleta, Samuel, & Mills, 2017).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낮을 때,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소속감을 상실하였을 때, 외로움의 정도가 클 때, 외부세계 또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개인은 내부적 고립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질을 대인관계 기술이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기도 한다.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은 은둔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이 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내향적이고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고립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J: 학급 학생 수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니까 도드라지는 ADHD, 폭력 가해 행위 이 아이들만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조용히 있는 애 챙길 이유가 별로 없죠. (...) 그 애들 먼저 이렇게 조용히 있고, 어찌다 학교 한 번 안 나오는데 엄마한테 찾아오면 애가 가기 싫대그리지.엄마를 때려 아버를 때려? 없어요. 이래 보니까 순한 아이들.그래서 정말 기질이 순했다가거의 99%예요. 순한 아이.

## 2) 대응체계의 방향성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응체계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응체계의 방향성은 (1) 아동·청소년기의 특징 고려, (2) 조기 발굴 및 개입, (3)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 (4) 개입의 다양화, (5) 부모 참여, (6)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 (7) 지원체계의 7가지 영역으로 정리되었으며, 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청소년기의 특징 고려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을 생각할 때는 그 발달 시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다. 우선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 아동·청소년기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자체도 부모, 또래 등 주변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고립에 처한 아동·청소년기의 회복 과정도 부모 등 주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받게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발달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생애주기의 발달 과업과는 다르게, 온전히 본인의 실패 혹은 잘못으로 느껴지기 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과업인 결혼, 출산 등의 과업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아동·청소년기의 과업,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는 것, 친구들을 사귀는 것,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 등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실패감과 좌절감이 클 수 있고 그 원인을 스스로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패들이 이후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도 큰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N: 부모에 의해서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제약받는 거라든지 응원 받는 것이 너무 격차가 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아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너무나 큰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P: 생애 주기에 발달 과업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청년기를 넘어가면 사랑이든 생산이든 자아 통합이든 그런 것들은 마치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처럼 요즘에는 좀 느껴져요.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돈 벌든 말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그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조금 타이트한 것 같고 그걸 해내지 못한 게 마치 선택이 아니라 이 아이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중략)... 여기에서 경험한 실패가 나의 사회 진출 성공 성공적인 삶에 대한 실패까지 파국화되는 걸 많이 봐서...

## (2) 조기 발굴 및 개입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들은 심각한 단계의 은둔에 들어가기 전의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부터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 작은 지각, 무단결석 등 고립의 전조 증상이 있는 청소년들이나, 반의 다른 친구들과 말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조용한 청소년들을, 눈에 보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실제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은둔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녔을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을 경험했을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학교는 다니고 있지만 아무와도 관계를 맺지 않는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들이야말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심각한 은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경우들을 접한 적이 있다고 보고한 참여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뿐 아니라 방과 후 이용하는 돌봄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발굴이 있다면 조기 개입이 더욱 원활히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F: 그게 학교에서 1차로 해야 될 거죠...(중략)...친구가 없는 것, 학교 폭력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결석도 있지만 이제 학교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그런 것들... 지각, 잦은 지각이 또 주증상이에요. 잦은 지각하다가 학교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조 증상이고 그래서 그때 좀 발굴하고 그때 좀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초기 증상이 '학교 안 갈래' 하면서 들어가버렸어요. 이때 빨리 개입을 해야 된다...

O: 학교는 잘 다니고 있지만 아직은 은둔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P: 학교에서 활용한다는 게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구요. 사실 발굴과도 연관 있는데 그게 예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 (3)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

면접조사에 참여한 일부 현장 종사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특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우선 오늘날의 아동·청소년들은 인원수가 과거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과거에는 50명에서 많게는 60명의 친구들이 한 반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의 혹은 두 개의 무리에서 배척되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을 구성하다 보니 하나의 혹은 두 개의 무리에서 배척되면 그 반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실제 친구들을 만나고 사교할 기회를 꽤 오랜 기간 상실하였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은 특히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며, 공동체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은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봉사활동, 놀이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B: 그게 어떻게 교사도 어떻게 학급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협동이나 협력이나 연대나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떨어져 나가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E: 의무 교육처럼 이게 대인관계든 사회성이든 자존감이든 공동체 의식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연령에 딱 맞게 뭔가 저희도 실무자들도 의무 교육하잖아요. 법적 의무 교육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런 교육들을 좀 사전에 해서 문제를 조금 예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J: 인성 프로그램도 반드시 2시간에 2회기 들어가면 집단 상담 하나 놀이 프로그램 하나를 넣었어요. 수업 시간에 같이 놀이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이 약간의 꾸뻑꾸뻑하고 내향인 나이도 뭐 하다 보면 은근히 손잡아지고 같이 만들어지고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놀이 문화가 사실은 이제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점점 안 되잖아. 우리 봉사도 없어졌고 놀이 문화도 없어지고...

#### (4) 개입의 다양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 원인 및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의 정도 및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어떤 청소년은 어려서 경험한 한 번의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하여 이후의 관계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청소년은 부모의 방임, 친한 친구의 부재 등 여러 번의 관계 속에서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집 안으로 은둔해버린 경우도 있다. 어떤 청소년은 집 안에 은둔하면서 온라인 게임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청소년은 책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청소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지만 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원인 및 형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개입 역시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개인별 고립화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면접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개인마다 매우 다양한 고립의 역사와 발현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고립화 과정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밀한 감정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고립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면 부모의 방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복지적 지원을 찾아야 할 것이며, 감정 조절의 미숙함 혹은 사회적 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은 청소년이라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방에서 은둔해 있는 청소년들도 저마다의 관심사가 다르므로 이를 파악하여 밖으로 유인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에게는 게임으로, 음식을 좋아하는 청소년에게는 음식으로 등 다양한 개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H: 고립 초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경증이라고 하면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되게 중요한데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전에 반드시 '그런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몰입 진단 척도 이런 게 아니라 애가 고립된 원인이 우울인지 불안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흔히 풀비터리 검사나 이런 전문 임상가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방 등 하나의 장소에서 은둔하여 바깥과

단절된 심각한 은둔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제대로 된 상담까지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 번 토로하였는데,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여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문밖에 가지고 간 치킨만 남겨두고 몇 번이고 돌아와야 했던 경험,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하여 문밖에서 책의 구절을 몇 번이고 읽어주고 아이가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렸던 경험 등, 심각한 은둔에 들어간 아동·청소년은 억지로 끌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사실 이러한 과정도 '상담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아동·청소년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J: 한 번도 안 했고 유일하게 1년 반 동안 2주마다 진짜 안 빼먹고 갔거든요. 저 치킨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걸로...(중략)...그래서 제가 팀을 따로 만들고 장기 접근하라는 이유가 애마다 달라요. 어떤 애 앞에 가서는 그 방 문 앞에서 제가 어린이 동화 읽어줬어요.

O: 상담까지 가고자 하는 그 과정을 이거는 앞에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상담만 하겠다고 할 수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포라는 것 있고 그래서 반드시 그 과정이 질의한 과정이 분명히 상담 상담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일 거고.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을 통한 개입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방 안에 틀어박혀 은둔해 있어도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교류는 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으로나마 개입을 위한 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그런 면에서 온라인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일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으며 온라인으로 상담 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예: 연락이 갑자기 닿지 않는 문제, 상담사에게 아무 때나 연락하는 문제 등)이 있음을 지적한 참여자도 있었다.

J: 온라인 접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략)...청소년기에는 우리가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청년은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활용해야 된다. 초기를 넘어서버리게 되면. 그리고 아이들은 또 은근히 그걸 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친구 사귀는 애들은 있어요.

L: 온라인 접근이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중략)...로그인까지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게임을 연결해서 게임을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접근 온라인에서 좀 빠져 있던 하겠지만 상담사들이 그 빠져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은 좀 저도 준비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P: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차단했다 풀었다 차단했다 풀었다 이런 대상이 되기도 해요.

상담과 더불어 언급된 효과적인 개입의 방안으로, ‘관계’ 중심적인 프로그램·활동과 ‘성취감’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활동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현상을 관통하는 문제는 ‘관계’일 것이다. 관계에서의 지속적인 상처 혹은 실패감은 아동·청소년을 사회적 고립으로 이끌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면접조사에 참여한 많은 현장 종사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작은 성취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H: 진짜 사회적 고립됐던 아이인데 애 진짜 은둔형으로 가기 직전인 아이였는데 애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애가 카페에 와서 인턴십도 하고 막 자격증도 따고 정책 제안 발표도 해나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저는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다.

J: 이분들은 집 문 한 번, 집 한 번 나가고, 몇 미터 나가고 집에서 요리 한번 해보는 걸 인증샷을 올려요. 그리고 글을 써요. 나는 오늘 요리를 해먹었다. 집 밖에 5분 나갔다 왔다. 주로 밤에 낮에 몇 키로 갔다 왔다. 이렇게 올리면 이제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또 뭔가를 사 먹거나 뭔가를 구입을 해요. 해봤자 5천 원, 1만 원인데 너무 행복해요. 성취감. 성취감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뭘로 성취감을 하나고 기타를 배워야 성취감이 생기는데 온라인을 통한 그 작은 성취감. 그래서 키트 같은 거 보내줘 가지고 뭔가를 만들게 한다거나 짠 하고 키우게 한다는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작은 요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로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5) 부모 참여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아동·청소년기는 ‘부모’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발달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지원 과정 속에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현장 종사자들은 부모를 통해서 은둔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지원을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집 안에만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녀가 염려되어 부모가 지원을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굴에서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립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도 부모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 부모를 통하여 대신 상담하거나 부모를 통하여 연락을 이어갈 수도 있다. 타인과는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부모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상호작용하는 은둔 청소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상담 혹은 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지원 과정 속에서도 부모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부모 스스로를 위해 상담 등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몇몇 현장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를 종종 만나며 이러한 부모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이 다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치료적 개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J: 그래서 계속 1차적으로는 누가 가장 아나 부모. 들어와버린 이상은 부모. 부모가 아이 상태를 아니까 이제네요. 엄마한테 욕만 하던 애가 이제 욕 안 하고 밥이라도 먹어요. 문자라도 보내요. 이 현상은 부모가 알 수 있잖아요. 학교 이제 아이 은둔 들어가 버려서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방문을 하든.

P: 은둔형 외톨이 혹은 고립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가족을 만나보면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신적인 문제에 아이들이 아주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을 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가족 지원도 좀 병행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좋지 않을까

## (6)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사회적 고립은 특수한 사람들 혹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경험하는 증상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인식이 심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이 심어진다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를 치부로 생각하고 숨기려 하지 않고 보다 쉽게 본인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지원을 찾아 나서기 힘든 정도의 심각한 은둔을 경험하는 경우라도 주변에서 보다 쉽게 이를 알아차리고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 현장 종사자는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자와 동일시 되는 사회적 시각의 위험성을 토로하였는데, 이러한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심어지지 않게끔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G: 뻔한 얘기긴 한데 '이게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문제가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 언어도 그런 고민이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 보면 누구 살인 사건도 그렇고 폭력 사건도 보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는데...(중략)...은둔 외톨이는 다 범죄자들이야 그렇게 치부돼버리거든요...(중략)...모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범죄는 아닌 거잖아요.
- O: 차라리 대국민 홍보 같은 거나...(중략)... 통해서 주변에서 사실 인식이 개선되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옆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

## (7) 지원체계

면접조사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들은 현재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우선 발굴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숨어 있는 은둔 청소년들의 발굴은 홍보 등을 통해서 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체계화된 대응 방법이 부재하여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양한 임상 경우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여 체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 은둔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데 현장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 보니 지속적인 지원이 불가능할 때가 있고,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은둔 청소년의 경우는 바깥으로 유인하고 상담 및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 및 복귀를 시키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담 및 지원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A: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좀 고민되는 지점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전문성이예요.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안정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문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후견인, 어떤 사람이 어쨌든 발탁되는지 모르지만 임금은 아마 정해져 있을 거고 쓸 수 있는 어쨌든 전문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F: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은둔형 발견하는 거는...(중략)... 너무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망 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때 이제 지역에 맞춤형 복지팀에다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센터로 연계해 달라는 그런 홍보를 매해 해왔고 거기서 이제 또 발굴돼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서...

#### 4. 시사점

면접조사는 현장실무자 15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실무자들은 아동·청소년기 관계망의 변화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변화이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현장실무자들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실제적인 정책이 출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고려들에 대해서도 전달해주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현상은 실재하고 정책 역시 빠르게 도입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다만 실무자들은 아동·청소년기가 가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가정-학교-현장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진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대응체계의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하고, 조기 발굴 및 개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전환, 개입의 다양화, 부모 참여, 사회적 고립 현상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체계의 전문화 및 체계화 등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 제4장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현황 및 과제

- 1. 개요
- 2. 법·정책적 현황
- 3. 시사점



## 1. 개요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서 시범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련된 몇 가지 법제, 대책,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 2. 법·정책적 현황

### 1)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 분석

사회적 고립 관련해서는 아동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관련법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살펴보고 관련 대책 현황을 제시하였다.

#### (1) 보건복지부 아동관련 정책 및 교육부 위프로젝트

2023년 보건복지부는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여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였고, 2024년부터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대책에서 아동의 사회적 고립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부의 위프로젝트(WEE

14) 이 장의 내용은 유민상 연구위원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project) 역시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응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반적 아동 및 학교 안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아직 발전 전 단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2)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법제도 및 대책

여성가족부는 2023년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은 기존의 정책 지원에 대상을 추가한 것일 뿐이어서 고립과 은둔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 기관,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1.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의 ‘사회적 고립’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12. 30.>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표 IV-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여가부, 복지부, 지자체)</li> <li>○ 은둔형 청소년* 규모 등 실태파악을 위한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소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상적인 사회생활 등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li> <li>** (예시) 서울시("22.4-12) : 사회적 고립 척도를 통해 6개 분야( ▲ 사회적 접촉, ▲ 정체성 불안, ▲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관계, ▲ 친구관계, ▲ 일터, ▲ 지역사회) 측정 및 진단(일반군, 위험군, 고위험군)</li> </ul> </li> <li>○ 고립 은둔 정의 개발, 자원모형 개발 등 고립 은둔형 청(소)년 발굴 지원체계 마련</li> <li>○ 은둔형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으로 포함토록 청소년복지 지원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4 신설 : (현행) 보호지원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개선) 은둔형 청소년 추가</li> </ul> </li> <li>○ 청소년지원기관 등 통해 은둔형 청소년 대상 상담(상담, 정보제공 등) 지원체계 운영</li> </ul>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청년 대책에 은둔 청소년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전 부처로 관련 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의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 또한 해당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지원기관을 통한 상담, 정보제공 등 은둔형 청소년 대상 서비스 운영도 명시되어 있어 청소년지원체계에서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사회적 고립의 맥락에서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기보다는 다소 사후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와 대책의 기초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나타난 것으로, 생애주기에 맞추어 아동청소년기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예방적, 사전적인 정책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 (3) 청소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청소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산의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가 있다. 여기서는 두 조례의 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는 2023년 10월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조례로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명시한 특징이 있다. 이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조례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포괄하므로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연령과 대상에 따른 지자체 담당과의 분절로 인하여 실제 다양한 연령 범위를 포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과정에 대해 예방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은둔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소 사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점,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표 IV-3.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은둔형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적응·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청소년으로 하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은둔형 청소년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예방방안
3.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등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청소년 예방 및 발굴
2. 은둔형 청소년 조사·연구
3. 은둔형 청소년 조기 개입·긴급 구조
4. 은둔형 청소년 대면·비대면 상담 및 교육
5. 은둔형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은둔형 청소년 자조(自助) 모임 지원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은둔형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비 지원)**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및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족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과 보호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가족
6.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 지원사업과 제8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는 2021년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영국에서 외로움에 대한 대응 전략(tackling loneliness)을 세운 것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외로움 대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선진적인 조례로 볼 수 있다. 현상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치유와 행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명시한 장점이 있다. 이 조례 역시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 대한 대응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해 보인다. 실제 외로움을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기보다는 지자체의 책무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외로움에 대한 대응을 선언에서 현실로 만들려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내부적 고립에 해당하는 외로움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을 포괄하는 것도 필요하다.

#### 표 IV-4.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과 범죄노출 등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내용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외로움”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정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소외됨을 느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프고 불행한 감정을 말한다.
3.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외로움이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한 삶을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 관련 실태조사
3. 지역사회와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치유 등에 관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 상담기관 등 기관연계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지원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6. 그 밖에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① 제3조 2항에 따라 군산시장은 군산시 청소년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과 청소년 시설,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등 청소년 전문가

4.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3. 시사점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분야의 법제도와 지자체 조례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시행령에 선제적으로 사회적 고립과 은둔을 의미하는 대상자를 명시한 장점이 있으나, 향후 지원 서비스, 인력, 전달체계 등을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분야와 교육분야에서도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지원을 명시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 조례는 경기도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와 군산시의 청소년 외로움 조례가 설치되어 있다. 두 조례 모두 지역에서의 선제적 대응으로 큰 의미가 있으나, 경기도는 사후적인 접근 위주이며 가족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 군산은 외로움으로 한정된 것과 임의규정 위주인 점은 아쉽다. 이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조례를 보면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고립청년 발굴, 지원사업 등 구체화되어 있고 지자체의 책무가 분명하고 강행규정으로 규정된 장점이 있다. 이는 법제도가 상징을 넘어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지원조례는 청소년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 등 이행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합적인 법제도의 통합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는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기개입과 인식개선을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청 역시 관련 정책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들이 생애 전반기에 사회적 고립에 특화된 사업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학교 안과 밖에서의 통합적 지원, 고립 단계가 징기화되고 심화되기 전 예방적/사전적 접근,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과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등으로 더 공고하게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들은 정책 형성에 있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 제5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 4. 후속과제를 위한 제언



## 1. 정책제언 도출 과정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 실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면접조사, 법제도 분석 등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법제 분석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고립의 외부적, 내부적 고립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기는 학교 생활 등이 있어 은둔으로 측정하면 고립위험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 및 위험요인이 있으며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고립은 생애단계에서의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정의 및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황에서의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정책 방안 및 개입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5) 이 장의 내용은 각 장에서 서고운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 이지연 부연구위원 등 공동연구진이 제시한 시사점과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유민상 연구위원 연구위원이 정리·작성하였다.

둘째,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현황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부 연구들이 존재해 왔으나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표성 있는 측정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는 사회 지표로서의 측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과대 추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서비스 판별을 위한 선별도구의 발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면담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서의 경험을 보면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기군은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발굴 방법, 개입방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등 가정 내에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황에서는 측정도구의 개발 및 실태조사 시행으로 근거 기반의 단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고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현황 및 과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직까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대응은 매우 초기 단계에 있거나 미발전되어 있어 아동 관련 법 및 교육 관련 법정책에서의 대응 미비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후 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입 근거 마련되어 있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을 통한 정책 방향성 역시 제시되어 있어 서비스가 확대될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원체계를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가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조례는 경기와 군산에서의 은둔형 청소년, 외로움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사후적이고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다양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정책적 현황에서의 시사점과 과제는 아동·청소년기 관련 법제도 개정 및 교육 관련법 개정, 조례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공고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표 V-1. 연구의 주요내용·시사점 및 정책제언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li> <li>- 아동·청소년 고립의 외부적, 내부적 고립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li> <li>- 아동·청소년기는 학교생활 등이 있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의 개념화 및 고립화 과정에 대한 연구 부족</li> <li>▶ ➡ 사회적 고립의 개념화, 실태 파악, 서비스 개입 등에 대한 체계적 방안 마련</li> </ul>

주요 내용	시사점 및 정책제언
<p>은둔으로 측정하면 고립위험이 과소 추정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 및 위험요인이 있으며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침</li> <li>- 사회적 고립은 생애단계에서의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기 조기 개입 체계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의 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표성 있는 측정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일반현황뿐만 아니라 서비스 판별을 위한 선별도구의 발전도 필요한 상황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실태 파악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도구의 개발 및 실태조사 시행으로 근거 기반의 단계적 지원 방안 모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아동·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면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기관에서의 경험을 보면 사회적 고립과 은둔 위기군은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li> <li>- 아동·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발굴 방법, 개입방법,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li> <li>- 아동·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교육 등 가정 내에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 발굴 방안 마련, 개입방법 체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장기계획 수립</li> <li>➔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개입과 부모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상황 개선</li> <li>➔ 당사자와 서비스의 수용성과 서비스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한 인식 개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적 고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현황 및 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관련 법 및 교육 관련 법정책에서의 대응 미비</li> <li>-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후 서비스 차원에서의 개입 근거 마련</li> <li>-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원체계를 통한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li> <li>- 사회적 고립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근거 마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사회적 고립 상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기 관련 법제도 개정 및 교육 관련법 개정, 조례 근거 마련 등</li> </ul> </li> </ul>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세부 정책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책 비전과 주요 원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정책 비전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로”이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이 과거와 비교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 홀로 지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사회적 고립화 과정에 빠질 수 있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설정한 주요한 원칙은 네 가지이다. 이 연구는 주요한 원칙으로 사회적 고립 스펙트럼의 다양한 범위 포괄화, 아동·청소년기 예방적 개입 및 조기 개입(예방원칙), 고립화(process) 과정에 대한 증상기적 개입,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원(다양한 도구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 원칙으로 다양한 유형과 심도의 고립을 포괄하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 스펙트럼의 다양한 범위 포괄화는 고립에 대한 대응은 은둔과 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상과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고립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립의 가벼운 단계에서부터 은둔과 같이 심화된 단계까지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적 고립(연결망과 연락, 지지체계)과 내부적 고립(고립감, 외로움)에까지 다양한 형태의 고립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방원칙으로 아동·청소년기 예방적 개입 및 조기개입이다. 우리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탄력성을 가지고 고립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립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이런 탄력적인 회복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면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립에 대한 대응은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립화 대응 원칙으로 과정에 대한 개입 전략 수립이다. 고립은 단일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생애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다.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립은 단일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고립은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며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서비스 제공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고립화 과정에 대한 증상기적 개입이 중요하다.

넷째, 통합지원 원칙으로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심리사회적,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하는 것이다. 고립은 상담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끊어진 연결망을 회복하는

진 개인의 회복과 참여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시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환경의 아동·청소년들이 단일한 서비스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V-1.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

이와 같은 정책비전과 4가지 원칙을 통해 이 연구는 3가지 정책영역과 9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이 연구는 세 가지 정책영역을 설정하였다. 정책영역은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포괄성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등이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정책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V-2. 본 연구의 정책비전 및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세부과제 도출

첫째,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영역은 아동·청소년 고립현황 실태파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생애주기적 접근으로 확대(예방적, 사전적 접근)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둘째,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 영역은 발굴방안 개선,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제도적 밀착성 강화),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전달체계 체계화 및 인력 전문화 등 4가지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영역은 사회적 인식개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가지이다.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영역은 아동·청소년 고립현황 실태 파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생애주기적 접근으로 확대 (예방적, 사전적 접근) 등 3가지이다.

표 V-2. 영역 I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실태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

정책과제
영역 I.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세부과제 1-1. 아동·청소년 고립현황 실태 파악: 척도개발 및 실태조사 시행
세부과제 1-2.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세부과제 1-3. 사회적 고립에 대한 생애주기적·단계적 대응 방안 마련

### 과제 I-1

### 아동·청소년 고립현황 실태파악: 척도개발 및 실태조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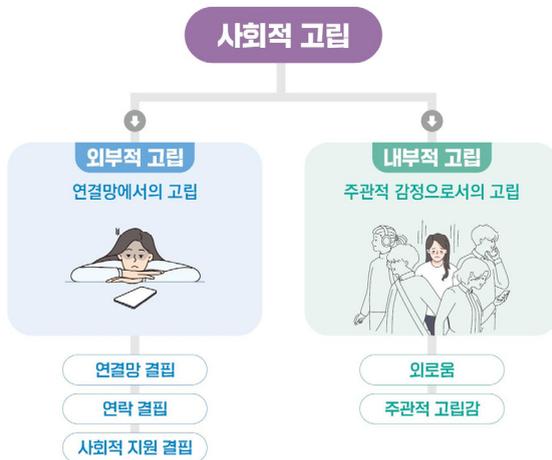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2023년 현재 아동·청소년 고립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와 청년 대상 조사를 통해 추정할 뿐이다.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인 202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에도 동일한 문항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sup>16)</sup>
- 다만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측정 도구 및 조사 방식을 통해 이러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6) 문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 참고. 해당 문항은 KOSIS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서비스(MDIS)에서 원자료 공개 예정임.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부내용

- 실태에 대한 파악은 일반조사 방식과 심층적인 사례조사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일반조사(general survey)를 통한 규모 추정은 전체적인 비율과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다. 단, 아동·청소년기에는 은둔보다는 전체적인 주관적 고립감, 지지체계의 부재, 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둘째, 사례조사(case study) 혹은 비확률 표집을 통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는 고립은둔 관련 기관 이용 청소년, 부모, 실무자 등을 통한 사례조사로 양적조사와 질적조사 등 혼합방법론을 활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적 고립 측정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청년 대상의 사회적 고립 측정 도구는 학술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고립청년 선별도구 등 정책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 사회적 고립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적 고립, 내부적 고립 등 다양한 상태에 대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출처: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가 제시한 개념을 유민상, 신동훈(2021)이 도식화하였고, 본 보고서에서 도식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음.

그림 V-3. 사회적 고립의 개념 도식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 고립에 대한 중앙차원의 법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기본계획에도 일부 방향성만 담겨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출발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더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복지 관련 법제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서비스), 인력, 전달체계, 서비스 기간 등이 더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도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복지부의 전달체계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위클래스 등의 체계에서도 대응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 안팎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룰 수 있다.

## □ 세부내용

- 지자체의 조례는 경기도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조례와 군산의 청소년 외로움 조례가 생성되어 있다. 이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경기도의 사례는 사후적 특징이 있고, 군산의 사례는 사회적 고립의 포괄 범위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 더 종합적인 지자체 조례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조례명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예방과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혹은 '사회적 고립 청소년 지원 조례' 등 다양한 명칭의 조례를 고려할 수 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목적,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서비스 기관 설치 및 운영, 인력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조례의 기본방향은 사후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과 사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하며, 연령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연령기반의 지원체계 간 연계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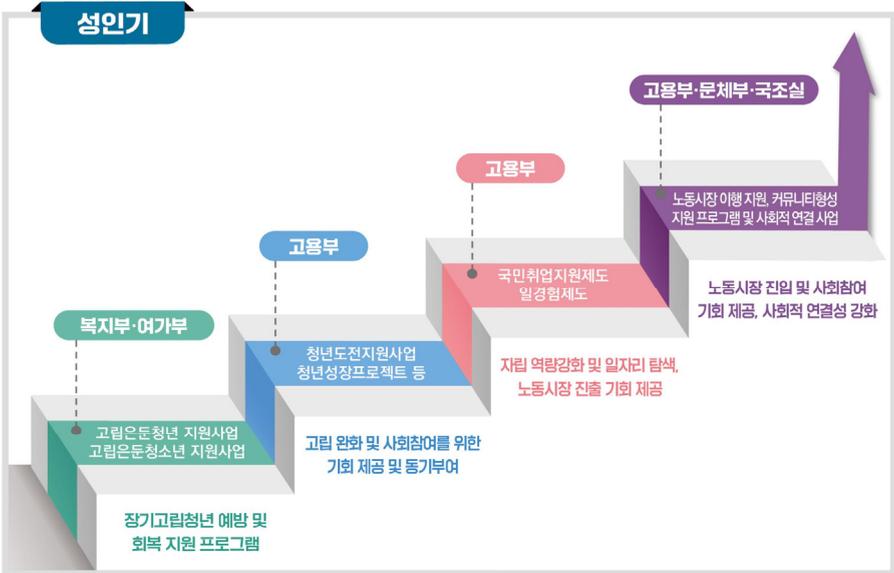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고립을 생애주기적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기는 매우 초기의 예방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유민상, 신동훈(2021)의 연구에서 면접에 참여한 청년이 ‘고립의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고려해본다면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매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의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은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
- 연령기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어 연령 분절적인/담당 부처 분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생애주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청년기의 체계가 서로 연계되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세부내용

- 향후 정책은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대응체계로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전달체계의 정보 연결, 서비스 연결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예방적 정책과 보편적인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인기 이행을 위한 사회참여 및 사회경제적 활동 기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사회적 고립 대응에 대한 생애주기적·단계적 대응 모형(안)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기는 학교 안(교육부), 학교 밖(여가부)와 지역사회(복지부, 여가부, 지자체)가 연계된 모형이다. 각 체계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정보연계, 서비스 연계(의뢰), 모니터링 연계 등으로 협력할 수 있다.
  - 성인기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은둔과 같이 가장 고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된 상태에 대한 개입(복지부, 여가부)과 그 이후 사회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입(고용부) 등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립화의 경로에 놓일 수 있으므로,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 및 고립감 해소(문체부) 등 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 고립은 하나의 과정이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서비스가 누락되어 재고립의 경로에 들어서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생애전반기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칭]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위원회**  
 생애주기별 고립, 은둔, 외로움 관련 정책에 대한 기획 및 조정기능

\* 출처: 저자작성

그림 V-4. 사회적 고립에 대한 생애주기적·단계적 대응 모형(안)

## 영역 II

##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 영역은 발굴 방안 개선,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 (제도적 밀착성 강화),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전달체계 체계화 및 인력 전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3. 영역 II: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과제
영역 II. 발굴에서 학교 안팎 서비스까지 연결성, 포괄성 확대
세부과제 II-1. 발굴방안 개선
세부과제 II-2.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
세부과제 II-3.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과제 II-4. 전달체계 체계화 및 인력 전문화

### 과제 II-1

### 발굴방안 개선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이 연구의 면접조사에서 기존의 청소년 상담체계는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사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고립과 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발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기관 연계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 세부내용

- 청소년계에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조기 학교 이탈자(early school leaver)로 범위를 넓혀 데이터 연계 및

사례관리 방식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조기개입 방향에서 접근(생애전반기, 고립초기 발굴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교육 이후 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고교 비진학,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및 발굴 방안 모색,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연령별, 지역별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규모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 연계기관을 통한 아웃리치, 전문팀을 활용한 아웃리치 등 다양한 발굴 방안 활용 등이 필요하다.

## 과제Ⅱ-2

###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2013년~2022년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학교 내에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었다. 이 조사는 학교조사이므로 학교 안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외로움 문제도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 청소년정책은 학교에서 이탈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학교 내 지지체계가 없고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 세부내용

-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 안과 학교 밖 체계의 연계 다음과 같이 세부화될 수 있다.
  - (체계 간 연계) 학교 안의 위클래스와 학교 밖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 그리고 지자체의 대응체계(지자체 단위 서비스 체계)가 공동 발굴, 정보연계,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연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중앙부처-교육청-지자체 간 업무협력) 개발 기관 차원에서 업무협력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중앙부처-교육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력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사업은 기관 간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실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발굴-홍보-프로그램-사후관리 연계) 다양한 사회적 고립 스펙트럼의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전문 상담, 커뮤니티 참여, 참여활동, 문화체험, 일경험, 부모교육·상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굴과 홍보를 공동으로 시행하여 각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될 때는 주도적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시행하는 기관이 아동·청소년 참여자와 가족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V-5.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학교 안-학교 밖-지역사회 연계 모형

- (아동·청소년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의 발전) 증장기적 방안으로 지자체 단위에서는 전문 상담, 커뮤니티 참여, 참여활동, 문화체험, 일경험, 부모교육·상담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거점센터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각 연계기관의 실무자가 파견되어 각자의 전문적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센터의 설치에 현황 파악과 근거기반 서비스 성과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상태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아동·청소년·청년기 서비스 기관의 연계로의 발전) 고립은 하나의 과정이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서비스의 분절로 용기를 내어 서비스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재고립 경로에 들어서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접근할 때는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 가족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고립은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3장 현장전문가 면담 내용 참고).
-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고립이 되기도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문제로 고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함께 고립되는 경우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 당사자들의 고립 이후 부모와 가족이 이 상태를 바로 알아차려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시기를 놓쳐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 미성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서비스, 의료서비스 이용은 그들의 부모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는 경향이 있다. 부모와 가족이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고립 문제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아동·청소년들의 회복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

## □ 세부내용

-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고립과 은둔 문제에 대한 당사자 교육 및 부모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관련 서비스 체계는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체계를 함께 구성해야 한다.
-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지원
  - 아동·청소년·청년기 사회적 고립 서비스 신청은 부모나 가족(형제)에 의해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유민상, 신동훈, 2021). 부모와 가족에 대한 자조모임 지원을 통하여 당사자의 가족이 당사자들이 서비스에 신청할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 부모와 가족의 서비스 부동의 상황에서의 개선책 마련

- 부모의 부동으로 고립 청소년의 서비스 제한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나 학교/기관 위원회에서 동의를 하고 부모에 사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 2023년 5월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발의안, 의안번호 22421)은 2023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이 발의안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 동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해당 법안이 폐기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아동·청소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표 V-4.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421, 2023.5.31.)**

---

**제13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5. 그 밖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지원
- ② 학교의 장이 제항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지원대상학생 중에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 위기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위원회에 보고한 후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고립 대상은 가벼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나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 전문화된 개입이 서비스 단계에 필요하다.
  - 의료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며 전문성이 높은 종사자에 의해 장기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상담만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가 구상되어야 한다.
- 서비스 연계가 서비스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서비스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달체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 □ 세부내용

- 전달체계의 체계화 전문화
  - 본 연구의 과제 I-3에서 제시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생애주기적·단계적 대응 방안'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에 있어 관련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계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 서비스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전달체계의 체계화, 전문화가 필요하다.
-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의 구성
  - 사회적 고립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패키지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상담, 가정환경 및 부모에 대한 개입·교육 지원, 부적절 양육환경에서의 대리적 서비스 지원, 학교 안(위클래스)과 밖(꿈드림)에서의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학교 안과 밖에서의 연결, 관계 형성,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가정 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점진적 지원(활동지원, 일경험, 다양한 집단에의 참여 및 소속감 증진 등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는 사회적 고립의 정도와 당사자의 선호에 따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및 양성방안 마련

- 우리나라에서 청년 대상의 사회적 고립, 은둔 관련 서비스는 다양한 뿌리에 의해 형성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비영리단체(NPO)와 당사자들이 해당 문제를 제기하고 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시행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 하지만 당사자성을 가진 서비스 기획 및 제공은 서비스 전문성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당사자성과 전문성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와 운영에서 각기 다른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따라서 전문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에서 서비스 인력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격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인력의 보수교육, 서비스 양성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영역Ⅲ

###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영역은 사회적 인식개선,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가지이다.

표 V-5. 영역 Ⅲ: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과제
영역 Ⅲ. 사회적 인식개선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세부과제 Ⅲ-1. 사회적 인식개선
세부과제 Ⅲ-2.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과제Ⅲ-1

#### 사회적 인식 개선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학교 내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과거에는 주목받지 않았던 ‘조용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욕구에 맞는 지원 방안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 사회적 고립의 원인으로 경쟁적인 사회문화와 분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입시만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 및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 세부내용

-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단순 상담서비스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 및 공동체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예: 봉사활동,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해야 한다.

##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은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 있다.
  -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직은 단기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해당 서비스 성과도 불명확하다.
  - 일부 서비스는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등 전체적인 사회서비스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흐름과 맞지 않아 장기적 영향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 □ 세부내용

-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 서비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활성화와 재고립의 반복적인 궤적에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관리되고 있는지 등 파악이 필요하다.
  - 다만 성과목표를 진학이나 취업 등 너무 성과 지향적으로 세워서는 곤란하다. 사업 시작 시 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도, 활성화 정도, 사회참여 정도, 사회적 연결 변화 정도 등의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여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립한 상태에서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 4. 후속과제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에 대한 파악을 기존 문헌과 사회지표, 그리고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였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면접을 통해 현황을 더 자세하게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는 연구기간이 짧은 수시과제로 진행되었고, 매우 초기단계의 연구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만나 연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후속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정책이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발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024년부터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은둔 사업을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이 시행착오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기적 시각에서의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초기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강수현, 이동형, 최주희 (2022). 청소년의 반응적 공격성과 외로움의 관계에서 사회적 고립과 지각된 학교폭토의 조절된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53(3), 125-149.
-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국민통합위원회 (2023).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내부자료.
-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최홍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기초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희, 이동형, 김문재, 남윤주 (201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27-348.
- 김은정 (2001). 친구 없는 청소년에 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35-549.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김춘남, 박승남,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원: 경기복지재단.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임희진, 서고운, 유성렬 (202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가빈, 이소민, 김재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류주연, 성기옥,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박찬용,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41-73.
- 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부모 작성용 은둔형 외톨이 선별 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2(4), 262-270.
- 신예림, 유현경, 한상희, 김순규 (2023).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사회성 기술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61(0), 25-50.
- 안지영, 김종남 (2017). 청소년 사회적 고립 경험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2), 89-119.
- 여성가족부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오쿠사 미노루 (2020).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의회.
- 유민상, 김기현, 신동훈 (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기획재정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명숙, 송행숙 (2011). 부모 및 심리사회적특성과 집단괴롭힘 경험이 중학생 외톨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0), 89-121.
-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 제세령, 최태영, 원근희, 봉수현 (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61(2), 80-89.
- 최지현, 조미형, 이승영 (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측정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74(2), 53-78.

통계청(각년도). 사회조사.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Asher, S., & Wheeler, V.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500-505.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01-212.

Crystal, S., & Shea, D. (1990).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inequality among elderly people. *The Gerontologist*, 30(4), 437-443.

Crystal, S., Shea, D. G., & Reyes, A. M. (2017). Cumulative advantage, cumulative disadvantage, and evolving patterns of late-life inequality. *The Gerontologist*, 57(5), 910-920.

Dannefer, D.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6), S327-S337.

Durcan, D. & Bell, R. (2015).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course. UK: Public Health England.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1025-1034.

Kato T. A. Kanba S.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427-440. 10.1111/pcn.1289531148350

Loades, M.E., Chatburn, E., Higson-Sweeney, N., Reynolds, S., Shafran, R., Brigden, A., Linney, C., McManus, M.N., Borwick, C., Crawley, E. (2020). Rapid systematic review: the impact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on

-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context of COVID-19.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59 (11), 1218-1239. <https://doi.org/10.1016/j.jaac.2020.05.009>.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 Russell, D ,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90-294.
- Russell, D ,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te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Russell, D.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Kasai, M., Shimokawa, N., Hayakawa, K., Umene-Nakano, W., Aikens, J. E., Kanba, S., &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25).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10), 780-788. <https://doi.org/10.1111/pcn.12691>
-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 367-391.

#### [법령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의 개념, 실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현황, 문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타인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고, 문헌연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의 개념, 특성, 영향요인, 측정방법, 발생추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면접조사와 관련 법정책 검토를 통해 사회적 고립 관련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법·정책적 근거의 한계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대응을 위한 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4가지 원칙하에,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비전은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에서 사회적 연결로”이며, 정책 도출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고립 스펙트럼 포괄 원칙, 아동·청소년기 예방·조기 개입 원칙, 사회적 연결을 위한 심리사회경제적 지원 원칙, 고립화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 개입 원칙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세부 과제를 제시하여 정책 형성기에 있는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고립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보고23-수시03

---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인 쇄 2023년 11월 22일

발 행 2023년 11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044-865-8115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3-수시03

#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